



## 유럽의 농장동물복지(가금)



홍의철 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가금류의 환경에 대한 반응은 농장주들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지만, 그런 반응들은 동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금류(특히 닭)는 소음, 조명, 온도, 다른 가금류, 사람과 같은 다양한 주위환경에 반응한다. 농장주들은 닭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하도록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닭들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면역이 떨어져 병원체 확산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유럽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사육 시스템에서 동물복지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압박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국가 간 규제를 통한 강도 높은 법률을 도입하게 되었다.

유럽의 제정법은 유럽 위원회에 의해 작성

된 제안서와 EU 지도부의 의견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99년 제정법이 제시된 이후 유럽의 산란 시스템은 내장형 케이지나 대체 시스템의 사용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산란계의 복지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긴 이익에 대한 연구들이 몇몇 국가와 유럽 연구에서 수행되어 왔거나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들은 골절과 깃털 쪼기, 심지어는 카니발리즘의 문제를 접하지 않고 산란계를 사육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한다. 또한 내장형 케이지나 새장에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런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케이지와 사육방법에 대한 발전을 가져왔고, 분자생물학적 기



법으로 깃털 쪼기와 같은 행동 및 복지 특성에 대한 구멍이 이루어졌으며, 암탉이나 다른 종에서 복지를 위한 유전자의 식별이 점차 가능해졌다.

EU에서는 2000년에 육계의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각약중, 피부염증, 심장 및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했다.

산란계에 대하여는 2007년에 육계와는 다른 복지사항을 제시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육밀도이다. 이들은 주로 동물복지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제를 가하는 형태로 규정을 제시했다.

육계 농장의 등급은 도계장에서 발바닥염증 발병률과 심화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되며, 사육밀도는 출하시에 39kg/m<sup>2</sup>에서 42kg/m<sup>2</sup>로 상향조정 되었다.

현재 EU에서 제시되고 있는 발바닥염증 발생빈도는 복지수준 평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보며 육계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더욱 개선된 평가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EU가 제시한 프로젝트는 전체적인 동물복지 평가를 농장수준에서 실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EU의 동물복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양호한 사양관리(목마름과 배고픔의 부재)
- ② 양호한 계사(안락한 휴식, 쾌적한 온도, 편안한 움직임)

③ 양호한 건강(관리 중의 상해와 질병 및 고통 부재)

④ 적합한 행동 특성(적합한 사회적 및 의의 행동표현, 양호한 관리인과 동물의 상호관계, 활발한 감정상태)

이러한 4가지 평가기준을 구축한 후 여기에 따른 측정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가장 우수한 수준부터 가장 열악한 수준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들을 설정해야 한다.

EU의 동물복지 프로젝트는 육계의 절음발이를 예방하고 초기성장을 억제하며, 운동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무제한 급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용종계에 대한 사료의 제한급여는 번식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으나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굶주림과 갈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계다가 사료를 제한하여 급여하는 종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종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나쁜 인자들이 계란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체계에 따른 선발효과는 육종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생산초기에 적응능력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자들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실용계 생산을 위한 선발효과에 대하여 더욱 의문을 갖게 한다.

오늘날 동물복지 특성과 관련되는 유전적 선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장기적인 연구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복지에 가장 적합한 선택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닭에서 사료를 제한급이할 경우 제한급이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거나 제한급이를 대체할 수 있는 희석사료 급여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날 동물복지 특성과 관련되는 유전적 선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장기적인 연구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복지에 가장 적합한 선택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닭에서 사료를 제한급이할 경우 제한급이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거나 제한급이를 대체할 수 있는 희석사료 급여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오리의 경우, 식우증과 오리사육장 문제가 가장 크며 이외에도 물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이 제시되고 있다. 오리가 물에 접근하는 것으로 인하여 위생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오리사육에는 보다 적합한 사육 시설과 기구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육성 체계에서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한 상업적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육성체계는 이상적인 사육시스템이 될

수 없다.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수많은 기준이 있지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사육환경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동물복지 측면에서 사육시에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을 기반으로 관리하면 동물복지로 인하여 생산비가 높아진다.

그러나 유럽의 소비자들은 동물 복지를 강화할 것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며 동물복지가 강화된 축산물을 기꺼이 구입하겠다고 한다. 이런 유럽의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국내 양계 농장에서도 동물복지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사육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